

崛山寺에 대한 研究와 展望

—韓國大學博物館協會 春季學術發表會要旨—

方 東 仁*

[I]

崛山寺는 新羅下代 9山禪門中 闍崛山派의 本山이었다. 梵日에 의해 開創되는 崛山寺는 新羅末의 時勢變動과 함께 크게 隆盛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梵日의 法脈은 門下弟子들에 의해 이어져 崛山派의 第2本山인 曹溪山 修禪寺를 개창한 普照國師 知訥, 그후 恭愍王時 王師였던 懶翁和尚에게로 이어졌다.¹⁾

崛山寺에 관한 연구는 여느 禪門 寺刹에 비해 다소 관심이 적었던 感이 없지 않으나 近年에 와서 관심의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간의 研究成果로서는 崛山寺의 開創時期·存廢時期·闍崛山派의 개창자인 梵日이 溟州[江陵]에 오게 되는 動機 및 그의 出自, 梵日의 門下弟子들에 의해 전개된 布教活動, 崛山派와 江陵豪族[金氏]과의 관계등 刮目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引用된 資料로는, 三國遺事·高麗史·東國輿地勝覽·祖堂集·金石文·臨瀛誌(江陵邑誌)·江陵金氏世譜 등이었고, 崛山寺만을 주로 다룬 國內研究者의 論文으로는,

申千湜: 韓國佛教史上에서 본 梵日의 位置와 崛山寺의 歷史性 檢討, 嶺東文化 1, 關東大附設 嶺東文化研究所, 1980.

張文哲: 嶺東地方 禪宗普及에 관한 研究——闍崛山派를 中心으로——慶熙大大學院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83.

白弘基: 崛山寺의 歷史的背景과 遺蹟遺物의 性格, 飛嶺, 1984.

등이 있고, 新羅下代 이후 禪宗에 관한 論文속에서 崛山寺를 다룬 것으로는,

金映遂: 曹溪宗·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卷, 震檀學會, 1938.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의 性格, 史學研究 25, 1975.

: 禪宗九山の 成立과 下代佛敎, 한국사 3, 1977.

등이 있다.²⁾

* 關東大學博物館長, 文博.

1)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第9卷, 1938.

2) 忽滑谷快天, 朝鮮禪敎史, 春秋社(日本), 1930. p. 98~100.

上記論文들에 있어서 利用한 자료라든가 接近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언은바 成果도 거의 같은 意見에 모아지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本稿의 작성은 既往의 研究者들의 業績에 힘입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본래 本稿의 작성 동기는 제26회 全國大學博物館協會 春季總會를 筆者가 奉職하고 있는 關東大學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會員들에게는 嶺山寺를 現地踏査 紹介하려는 의도에서였고, 地域社會에 대해서는 내고장 文化遺蹟에 관한 認識을 새롭게 심어주기 위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本稿의 論旨는 지금까지 연구된 成果중, 혹 異見이 있는 부분에 대한 筆者의 견해와 앞으로 嶺山寺 研究를 위한 展望에 관한 意見提示, 그리고 嶺東地方 文化遺蹟에 관한 새로운 認識契機가 되기를 바라는 概括的 內容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當日의 演說全文을 이곳에 실는 바이다.

[II]

嶺山寺는 오늘의 行政區域으로는 江原道溟州郡邱井面鶴山里에 위치하는바, 현재 個人所有의 田畝과 垆地로 化해 버린 寺址와 얼마간의 石造物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嶺山寺의 본래 境域範圍가 얼마였는지 확실히 따져내기란 어려운 상태로서 대체로 50萬坪 쯤으로 推定해 볼 뿐이다.

嶺山寺의 創建年代에 관하여는 현재 異見이 제기되어 있다. 즉 嶺山寺는 新羅文聖王 13年(851)에 설립된 것이라는 견해와³⁾ 文聖王 13年(851)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다는 견해이다.⁴⁾ 이러한 異見의 발생은 研究者가 채용하고 있는 資料와 그 資料의 文句解釋의 差異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三國遺事』(卷第3, 塔像第4, 洛山大聖觀音·正趣, 調信)에

嶺山祖師梵日 大和年中入唐 到明州開國寺……既而遍遊叢席 得法於塩官 以會昌七年丁卯還國 先勸嶺山寺而傳教…….

라 한 記錄과 『祖堂集』(卷 17)에서,

會昌六年丁卯八月還……大中五年正月 於白達山安坐 溟州都督金公 仍請住嶺山寺…….

라 한 記錄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前者는 梵日이 溟州都督金公의 초청을 받아 溟州에 오게 되지만, 『三國遺事』에서 기록하였듯이 「先勸嶺山寺而傳教」하였다는 기록에 絕對性을 인정하여 溟州에 오게 된 해인 大中五年(851, 文聖王 13)이 嶺山寺의 開創年代로 보는 것 같다.

한편, 後者는 『祖堂集』의 記錄이 『三國遺事』의 기록보다 正確하다고⁵⁾ 보아 「梵日이 귀국 후에 일시 慶州에 留滯하였다가 얼마 후 白達山에 安坐하여 文聖王 13年(851) 正月까지 이곳에 起居하였으며 이때 溟州都督金公이 大師의 名聲을 듣고 그에게 請住嶺山寺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請住嶺山寺”는 이미 嶺山寺가 開創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 하여 嶺山寺의 存在는 文聖王 13年(851)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견해이다.

3) 白弘基, 嶺山寺의 歷史的背景과 遺蹟遺物의 性格, 飛韻, 江陵大學, 1984, p. 36.

4) 申千湜, 韓國佛敎史上에서 본 梵日의 位置와 屈山寺의 歷史性 檢討, 嶺東文化 1, 關東大學, 1980, p. 9.

5) 上揭論文, p. 9.

좀더 부연한다면 전자는 『三國遺事』의 기록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입장이라 하겠고, 후자는 9세기 중엽의 時勢를 收斂하여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제시된 당시의 時勢 및 史料解釋을 요약해 보면,

첫째, 梵日이 唐에서 돌아와(文聖王 9, 847) 慶州에 체류하다가 白達山에 安坐하던 중 851년(文聖王 13) 正月 溟州都督金公이 「仍請住崛山寺」라는 請을 받은 點.

둘째, 이보다 먼저 禪宗普及에 있어서 僧 道義가 江陵보다 北方에 위치하는 雪岳山陳田寺에 숨어버린 사실을 들고 있다.⁶⁾ 따라서 이미 세워진 崛山寺도 禪宗의 영향을 은연중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 點.

셋째, 襄陽 洛山寺의 경우 文武王 16年(676) 義湘에 의해 창건되었으나 元聖王 2年(786) 燒燼된 것을 憲安王 2年(858) 梵日에 의해 重創되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⁷⁾ 따라서 이 지역의 既存宗派는 敎宗에서 禪宗으로 회전하여 중창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崛山寺의 경우도 梵日の 창건 이전에 존재하였다면 그가 溟州에 오는 것을 계기로 宗派의 회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假說 제기의 가능성이다.

생각컨대, 山岳에 존재하는 寺刹이 軍事的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新羅下代 禪宗 9山의 性格은 다분히 邊方的인 존재이며⁸⁾, 또 그만큼 獨自性이 強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元聖王 2年(786) 洛山寺의 火災事件을 우연한 일로만 볼 수 없지 않을까 臆測해 본다. 그 理由는 元聖王 2年 무렵 新羅 中央政府의 커다란 政治變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宣德王이 後嗣 없이 죽자, 王位繼承 문제에서 金敬信(奈勿王 12世孫)과 金周元(太宗武烈王 6代孫)이 競合을 보이게 된다. 金敬信이 마침내 王位를 繼承(元聖王이 됨)하게⁹⁾ 됨에 따라 金周元은 江陵으로 退居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周元은 溟州郡王으로 封해져 翼嶺(襄陽)·三陟·近乙於(平海)·蔚珍 등 地域이 食邑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新羅 中央政府로부터 王位繼承에 밀려 落鄉하는 金周元의 溟州退居와 洛山寺의 火災事件은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臆測해 보는 것이다. 洛山寺의 창건은 文武王 16年(676) 義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대세론적으로 보아 敎宗寺刹이었음도 짐작이 되지만, 그러나 洛山寺는 火災事件이후 약 70년이 경과한 憲安王 2年(858)에 가서, 그것도 梵日에 의해 重創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洛山寺의 火災事件 원인에 대해 규명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嶺東地域이 梵日에 의해 崛山禪門의 開創을 계기로 禪宗化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梵日 이전에 이미 道義가 雪岳山陳田寺에 숨어들었다(記錄上)는 사실로 미루어 禪宗이 嶺東地域에 浸潤되고 있는 것은 사실

6) 上揭論文, p. 9.

7) 乾鳳寺本末寺蹟, 洛山寺寺蹟.

8) 九山禪門은 대체로 原新羅地域에서보다 또는 慶州로부터 훨씬 邊方に 놓이는 共通點이 추출되므로 그렇게 표현함.

9) 三國史記, 新羅本紀, 元聖王元年條 참조.

10) 金周元을 溟州郡王으로 封했다든지 翼嶺·三陟·近乙於·蔚珍 등 地域을 食邑으로 賜與했다든지의 記錄은 三國史記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단, 朝鮮初期 地理志(東國輿地勝覽)를 위시하여 歷代官撰地理志에서는 이를 註記하고 있다.

이다. 그러나 洛山寺 火災事件(786)과 배를 같이 하여 嶺東地域의 時事變動(金周元의 落鄉과 嶺東地域의 食邑賜與)이 일어나고 있음으로써 洛山寺의 重建은 당분간 중단된 채였고, 또 洛山寺가 敎宗의 道場임으로 해서 그 重建은 不可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약 70년이 경과하여 梵日에 의해 崛山寺가 禪宗의 本山으로 등장(851)하고, 또 崛山寺의 檀越이 바로 溟州都督이었다는¹¹⁾ 점을 감안하면, 洛山寺의 重創은 이러한 時勢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洛山寺의 重創(858)은 嶺東地域의 寺刹이 崛山門을 중심으로 禪宗으로의 회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溟州都督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때 新羅末의 禪宗은 邊方的이며, 地方勢力에 근거하는 獨自性을 지닌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 준다 하겠다. 따라서 崛山寺의 存在를 851년(文聖王 13) 이전으로 보는 견해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가령 851년 이전에 존재했다면 그것은 敎宗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疎略한 史料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장이고, 또 『三國遺事』의 기록과 『祖堂集』의 기록을 詳考해 볼 때 「仍請住崛山寺」에 대한 해석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그것은 溟州都督金公이 崛山寺의 檀越로서 崛山寺를 배풀고 梵日을 住持로 招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梵日의 弟子인 開淸에 의해 開創되는 普賢山寺¹²⁾의 開創緣由를 보면,

……爰有當州慕法第子閔規・闕浚欽風……仍捨普賢山寺 請以住持¹³⁾

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梵日의 死後 開請의 弟子들과 溟州의 檀越들이 普賢山寺를 배풀고 開淸을 住持로 모시고 있는 상황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知溟州軍主事인¹⁴⁾ 太匡王公荀息¹⁵⁾도 普賢山寺의 檀越이었다는 사실도 碑文은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崛山寺 開創年代에 관하여는 文聖王 13年(851)은 崛山寺의 開創이고, 또 闍崛山禪門의 勸建年代로 보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梵日의 出自라든가 그가 溟州 崛山寺로 오게 되는 동기 및 그의 僧歷에 대하여 『祖堂集』이 비교적 소장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 11) 梵日을 溟州로 請한 溟州都督은 崛山寺를 마련했거나 또는 큰 施主였을 것으로 보아 檀越이라 표현함.
- 12) 普賢寺의 애당초 이름을 地藏禪院이라 했다고 하나 朗圓大師悟眞塔碑 碑文 속에는 普賢山寺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씀.
- 13)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142.
- 14) 碑文에는 知當州軍主事라 되어 있음.
- 15) 碑文에는 荀息으로 刻하고 있으나 王順式을 그렇게 表記한 듯함.
- 16) 溟州崛山故通曉大師嗣鹽官, 法諱梵日(一作品日)鳩林冠族金氏……以元和五年(憲德王 二年)庚寅正月十辰……誕生……年至一五, 誓願出家, 諮于父母……於是落采, 辭親尋山入道, 年至二十, 到於京師, 受具足戒……泊乎太和(文宗)年中, 私發誓願, 往遊中華, 遂投入朝王子金公義琮……遍尋知識, 參彼鹽官濟(一作齊)安大師……梵日問曰如何即成佛, 大師答曰, 道不用修, 但莫污染, 莫作佛見菩薩見, 平常心是道, 梵日言下大悟, 殷勤六年後, 師到藥山, 值會昌四年沙汰僧流, 毀壞佛宇, 東奔西走……遂隱商山, 獨居禪定……後以誓向韶州, 禮祖師塔, 不遙千里, 得詣曹溪, 却以會昌六年(七年之誤)丁卯(大中元年文聖王九年)八月, 還涉鯨浪返于鷄林, 亭亭戒月光流玄兔之城, 皎皎意珠照徹青丘之境, 暨大中五年正月, 於白達山宴坐, 溟州都督金

- 鳩林冠族의 金氏이고, 憲德王 3年(810) 正月에 출생, 眞聖女王 3年(889) 5月 1日에 入寂.
- 法諱는 梵日, 祖는 述元이며 溟州都督兼平察을 지낸. 母는 文氏·溟州의 累代葉豪門이었다 함.
- 15歲時 出家, 20歲에 京師(慶州)에 가서 具足戒를 받음.
- 興德王代(827~835)에 王子인 金義琮과 入唐, 馬祖의 法師 鹽官濟安大師에게서 師事 6年.
- 藥山에 이르러 藥山 惟嚴大師와 交游.
- 文聖王 6年(844) 唐에서는 僧侶沙汰와 佛宇毀壞의 事變으로 商山에 숨어들어 혼자 禪定.
- 그후 韶州로 갔다가 歸國決心, 文聖王 9年(847) 8月 慶州에 돌아옴.
- 文聖王 13年(851) 正月까지 白達山에 安坐하던 중 溟州都督金公의 請으로 崛山寺에 오게 됨.
- 景文·憲康·定康王등 3王이 擬封國師하고 各差中使하여 迎赴京했으나 나아가지 않고 崛山寺에 40년을 머물다.
- 眞聖女王 3年(889) 5月 1日 入寂. 春秋 80, 僧夏 60, 諡號 通曉大師, 塔名은 延徽之塔.

특히 梵日의 出自에 대하여 『祖堂集』에서는,

……其母文氏 累代葉豪門 世稱婦範 及懷娠之際 夢徵捧日之祥 爰元和五年庚寅正月十辰 在胎十三月而誕生

이라 하여 그 母의 家門과 母에 대하여 婦範이 된다 하였고, 梵日을 妊娠할 때 捧日之祥(해를 두 손으로 떠받드는 상서로움)의 징조를 꿈꾸었다 했고, 정상적인 분만이 아닌 13個月만에 출생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臨瀛誌』에서의 이야기는 훨씬 添加되고 있고 未婚母 所生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한 良家の 處女가 崛山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石泉에 물을 길러 갔다가 유난히 비치는 햇빛에 無心히 그 물을 떠먹었더니 孕胎하여 14個月만에 玉童子를 낳았다. 이에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鶴岩 밑에 버렸더니 鶴이 날개로 아이를 싸주며 입에 丹實을 넣어주고 어더론가 가버렸다. 그로 인하여 凡常한 아이가 아닌 줄 알고 집에 데려다 養育한 것이 곧 梵日國師이다.”¹⁷⁾

라 하였다. 以上에서 보던 梵日이 唐에 留學 후 歸國하여 溟州에 오게 된 직접적 動機는 溟州都督 金公의 招請에 의한 것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溟州는 梵日의 出生地이자 外家이며, 또 祖父가 溟州都督을 지낸 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밀착된 緣故地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보다 실제적인 면에서의 溟州崛山寺로의 來到는 그의 祖父인 金述元과 溟州郡王으로 封해지는 金周元과의 關係, 그리고 梵日의 溟州 招請을 한 金都督과의 關係 등의 해명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더우기 梵日의 祖父인 金述元이 溟州都督으로 在任한 時期와 金周元의 溟州 退居時期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 일이라 하겠다. 그 理由는 金周元의 溟州退居와 함께 嶺東地域의 거의 대부분이 그의 食邑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면 新羅末期의 政治社會 현상을 보다 상세히 뒷받침

公, 仍請住崛山寺, 一坐林中四十餘載, 列松爲行道之廓, 平石作安禪之座, 有問如何是祖師意旨, 答曰六代不曾失, 又問如何衲僧所務, 答曰莫踏佛塔級, 切忌隨他悟, 咸通十二年三月 景文大王 廣明元年, 憲康大王, 光啓三年, 定康大王, 三王並皆特迂御禮, 遙申欽仰, 擬封國師, 各差中使, 迎赴京師, 大師久瀕堅貞, 確乎赴矣, 忽於文德二年己酉(昭宗龍紀元年西紀八八九年眞聖王三年)四月末, 召門人曰, 吾將他往, 今須永訣, 汝等莫以世情淺意亂動悲傷, 但自修心不墜宗旨也, 卽以五月一日, 右脇累足, 示滅于崛山寺上房, 春秋八十, 僧夏六十, 諡號通曉大師, 塔名延徽之塔(祖堂集卷十七, 第六張一第八張).

17) 臨瀛誌, 第8章 寺刹 및 石塔 崛山寺條 p. 256~258.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어떻든 梵日은 外家이며, 出生地인 緣故地에 溟州都督의 請에 따라 崛山寺에 安住하게 된 것이고 九山禪門의 하나인 闍崛山派의 開祖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다. 단, 밝혀두어야 할 일은 그의 外家요, 出生地였던 石泉과 鶴岩 아래에 崛山寺를 설립했다는 사실은 起緣에 속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IV]

현재 崛山寺의 廢寺時期에 관하여는 대체로 세 가지 見解가 있다.

첫째, 高麗 顯宗元年(1010) 丹寇에 의해서 燒失되었다는 견해.¹⁸⁾

둘째, 高麗 顯宗 4年(1013) 契丹侵入으로 燒燼되었다가 그후 일단 重創, 麗末鮮初에 廢寺당했다는 견해.¹⁹⁾

셋째, 1983년 遺溝整理發掘과 文獻記錄을 종합하여 存續下限年代를 麗末鮮初로 보는 견해.²⁰⁾ 등이다. 살피건대 崛山寺의 存在는 851년(文聖王 13) 梵日의 開創을 계기로 闍崛山派의 생성을 보게 되었고, 檀越이라 할 溟州都督 金公과는 특별한 관계에 놓이는 것도 위에서 言及하였다. 따라서 梵日에 의한 崛山寺는 嶺東地域의 中心寺利로서뿐 아니라, 闍崛山派의 本山으로서 많은 門徒를 통해 隆盛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²¹⁾ 특히 梵日은 江陵에 위치하는 崛山寺와 襄陽의 洛山寺, 三陟의 三和寺²²⁾를 차례로 세움으로써 이들이 명실공히 嶺東地域의 思想的 中心道場을 형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活動은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溟州都督 金公의 積極인 후원과 梵日 自身의 宗教的 素養에 基因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隆盛의 背景은 최소한 嶺東地域에서 金周元系의 金氏와 金述元系의 金氏의 結合에서 온 결과였다고 해석된다.

어쨌든 隆盛을 누린 崛山寺는 梵日의 入寂(889)을 契機로 다소 萎縮된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普賢寺에 現存하는 梵日의 弟子이며 崛山禪門의 第2祖가 된 開淸의 塔碑인 地藏禪院郎圓大師悟眞塔碑에서 보면, 開淸이 崛山寺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나 여러 차례 草賊의 寇略을 입었다는 것이고, 또 溟州의 崛山禪門 門人弟子들인 閔規, 閔澹欽風 등이 普賢山寺를 베풀고 開淸을 住持로 請하고 있는 점,²³⁾ 그리고 溟州의 軍主인 王荀息(王順式)이 檀越이 되고 있는 점으로 보면, 崛山禪門의 宗

18) 臨瀛誌의 견해.

19) 註(4) 論文 참조.

20) 註(3) 論文 참조.

21) 崛山禪門의 法脈繼承에 관하여는 前掲 金映遂氏의 論文 참조.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三陟都護府 寺院條를 보면, 三和寺는 闍屈山 品日祖師가 이곳에 와서 절을 세우고 三公이란 懸板을 걸었다는 것이다.

23) 文德二年夏(筆者註, 889: 眞聖女王 2-梵日大師入寂의 해) 大師歸寂 和尚墨巾倍增 絕學之悲 恒切忘師之恨 所以敬修寶塔 遽立豐碑 兼以常守松門 幾遭草寇……爰有當州慕法弟子閔規閔澹欽風 志切慕道情深 早侍禪扉頻申勸勞 仍捨普賢山寺 請以住持……遐通道路 又以高修殿塔 迴啓門牆 來者如雲納之……亦有知當州軍主事太匡王公荀息…….

統은 이제 崛山寺에서 普賢山寺로 옮겨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王順式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羅末麗初 溟州軍主로서 高麗太祖를 도와 後三國을 통일하는 데 크게 貢獻한 地方(溟州)勢力으로 파악하고 있다. 王順式의 姓은 본디 金氏이며, 그의 父 許越은 侶僧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許越이 崛山寺 출신의 승려였다고 斷言할 수는 없지만, 王順式이 普賢山寺의 檀越이었으며 父가 僧侶였다는 일련의 관계로 보면 本山이었던 崛山寺의 位置는 普賢山寺로 옮겨지고 있다는 좋은 例證이 된다 하겠다. 그것은 당시 知溟州軍主事인 王順式이 普賢山寺의 檀越이었기 때문이다.

梵日の 入寂후 崛山寺의 寺勢가 다소 萎縮을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僧統은 매우 융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成宗初 崔承老 獻上의 時務 28條중 제 8조를 보면,

伏見聖上 遣使迎屈山僧如哲 入內……²⁵⁾

운운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如哲의 出自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屈山僧이란 점과 또 闕內에 맞아들일만큼 이름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羅末麗初에 번영했던 崛山寺는 成宗初 崛山僧 記事 이후로는 별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하여 崛山寺의 廢寺時期를 契丹의 入寇로 보고 있다. 그러한 첫 記錄은 東國輿地勝覽이고, 이에 근거하여 江陵의 邑誌인 『臨瀛誌』는 顯宗元年(1010) 丹寇로 燒燼되었다고 했다. 或은 顯宗 4年(1013)의 契丹入寇로 燒燼되었다고 하기도 한다.²⁶⁾ 그러나 그 어느 경우도 現存 記錄으로서는 證據할 것이 없다. 그리고 위의 顯宗 1年과 顯宗 4年의 契丹入寇는 高麗와의 外交의인 壓力關係였기 때문에 溟州地域에의 분탕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좀 說得力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顯宗代의 契丹의 잦은 侵入은 이미 成宗代에 契丹將 蕭遜寧과 高麗의 徐熙와의 國境談判에서 鴨綠江으로써 境界劃定을 한 데 대한 返還要求(淸川江以西 鴨綠江以南의 280里 땅)를 위한 軍事示威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高麗가 淸川江以北 鴨綠江以南의 280里 땅에 소위 江東六州를 設置하였는바 契丹과의 國境談判에서 高麗가 宋과의 通交를 끊고 契丹에 臣事한다는 協約에 따라 鴨綠江으로써 境界劃定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高麗의 軍事地域인 江東六州地域에 대한 領土權認定이라는 重大事實의 발생이었다. 그러나 境界決定후 契丹은 江東六州地域에 대한 外交·軍事·貿易上의 價値意識을 하게 됨에 따라 그 返還要求를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契丹의 軍事出動에 대한 名分을 高麗의 內政問題인 康兆의 大逆行爲²⁷⁾의 問罪에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契丹의 侵寇로 받은 高麗의 被害는 주로 西北地方에 限定되는 것이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寺刹의 火災(燒燼)가 곧 廢寺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어떻든 嶺東地域은 地形的으로 太白山脈과 병행하여 東海에 面해 있기 때문에 邊境의인 性格을 갖고 있다. 또 一方通行의인 道路 역시도 外侵을 쉽게 하는 要因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顯宗代

24) 高麗史節要 第一卷, 太祖 5年壬午 秋7月條.

25) 第二卷, 成宗 6年壬午 6月條.

26) 前揭 註(4) 論文 p.18 참조.

27) 康兆가 穆宗을 弑害하고 18歲의 어린 임금을 王位에 앉힌 사건.

의 溟州地域의 契丹의 侵入事實을 들어보면,

- 顯宗 20年 3月：東女眞賊船十艘 寇溟州 兵馬判官金厚 擊却之
- “ 秋 7月：以朔方道登溟州管內十九縣 並被蕃賊侵擾 特蠲租賦

등이 있고 明宗 24年(1194) 2月 草賊 金沙彌의 무리를 左道兵馬使崔仁이 江陵城에서 埋伏, 150級을 斬한 일이 있다. 그후 神宗 2年(1199) 盜賊떼가 溟州에서 일어나 三陟·蔚珍등 2縣을 함락시켰고, 또 도적이 東京에서 일어나 溟州 도적떼와 합세하여 州郡을 침략하였다고 했다. 그후 高宗 4年(1217) 契丹兵이 堤川으로부터 敗하여 東쪽으로 도망하여 溟州의 大關嶺을 넘어가니 中·左·前軍이 이를 추격하여 溟州毛老院에서 이를 敗退시켰다고 했다.

따라서 高宗 4年(1217)의 嶺東地域에의 丹寇 侵入사실에 대해서 『臨瀛誌』는 매우 자세히 실고 있다.²⁸⁾ 그리하여 『臨瀛誌』의 기록은 高宗 4年の 史實을 顯宗元年の 史實이라고 誤記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²⁹⁾

이러한 渦中을 경과하면서도 崛山寺는 그 명맥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高麗末 恭愍王 2年 『傳燈錄』을 發刊함에³⁰⁾ 있어 崛山寺住持 惠湜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朝鮮初期에 作成되는 東國輿地勝覽 기록에서는 崛山寺에 대한 記錄은 없으며 題詠條에서 崛山鍾을 記錄하여 그 史蹟만을 附記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보면 崛山寺는 麗末鮮初의 變革期에 廢寺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V]

崛山寺址의 現存遺物로는 柱礎石³¹⁾·幢干支柱³²⁾·浮屠塔³³⁾·佛像³⁴⁾·瓦當類³⁵⁾·碑片³⁶⁾ 등이 있고, 江陵大學에서 1983年 遺溝整理를 한바 있다. 遺物의 대부분은 高麗時代의 것들이 구조를 이루

28) 高麗史節要卷 15, 高宗秋 7月條에, 「中軍前軍 追丹兵于忠原兩州間 法泉寺 移次秀帖……翼日 會于麥谷 與賊戰……迫于堤州之川……追至朴達峴……賊大潰……皆東走 追至溟州大關山嶺 將卒怯弱 退屯旬日 乃進 賊已險嶺矣……中軍·左軍·前軍 復追丹兵 至溟州毛老院 敗之……. 8月……丹兵圍溟州 翼日 四軍追至 後軍不及 屯于剛州라 한 史實에 근거하여 臨瀛誌에서는, 「高宗時 自東州陷安陽府 入原州 人力戰……金就驍 追擊破之 賊東走 至溟州大關山嶺……險嶺 陷溟州城 四出虜焚燒室屋 大殺人民 留連數月……丹兵屠溟州 北驅登州 自翼峴至金壤 所過鷄犬無餘 流血千里 回軍……」라함.

29) 白弘基, 前掲論文, p. 42.

30) 高麗名賢集 2. 傳燈錄刊行序, 大東文化研究院, 成均館大.

31) 柱礎石은 自然石과 잘 다듬은 것이 있다. 自然石은 寺址 한가운데로 水路를 묻는 工事가 있음으로써 밭에 놓여 있던 상태에서 제거되었음.

32) 幢干支柱는 寶物 第86號로 指定되어 있는바 高 5.5m의 花崗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도 韓國에 존재하는 幢干支柱중 제일 큰 것으로 생각됨.

33) 寶物 第85號로 指定되어 있고, 復原狀態는 제 짝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浮屠塔 옆에 파괴된 碑片이 있다. 따라서 浮屠塔은 몇 기초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4) 石佛像으로는 4基가 있다. 1基는 石泉(우물)에 있고, 毘盧舍那佛坐像으로 佛頭는 없음. 2基는 1968년 이후에 세운 屈山菴子에 奉安하고 있고, 다른 一基는 草菴에 奉安하고 있다.

35) 瓦當類는 關東大學 및 江陵大學에 자기 十數種이 保管되어 있음.

36) 碑片은 關東大學博物館에 5片이 收集되어 있음.

고 있고, 遺溝整理報告書³⁷⁾에서도 麗末鮮初의 것들로 결론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崛山寺址에 대한 今後의 展望으로는,

첫째, 廣域的 發掘作業이 이루어지기를 希望하고 있다. 그 理由는 個人所有의 田畝 및 垜地化되어 있어서 밭갈이 할 때나 집을 지으려고 整地作業時에 遺溝가 곧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며, 수년내에 發掘作業은 不可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理由는 新羅 九山禪門 가운데 嶺東地域의 中心寺刹이며, 그 本山의 規模를 확인하는 작업은 곧 羅末豪族의 規模를 알게 해주는 資料가 되기 때문이며, 셋째 理由는 江陵·溟州地域의 文化遺蹟開發(觀光資源開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崛山寺의 原位置에 대한 追跡이라 하겠다. 溟州·江陵 世傳에 의하여, 梵日의 外家이며, 出生地가 現在의 崛山寺址와 同一場所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崛山寺址는 梵日의 外家の 古宅址와 一致하는 것인가. 행여 麗末鮮初 혹은 朝鮮朝에 들어서 書院建立을 하게 되는 石泉書院과는 無關한 것인가를 의심해 본다. 따라서 今後의 追跡課題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發掘調査 및 文獻調査 研究를 綜合整理하여 崛山寺의 性格 및 歷史性 규명을 보다 整濟시켰으면 한다.

넷째, 앞에서도 제시되었지만, 嶺東地域의 宏大한 歷史遺蹟이니만큼 可能한 限 散在하는 遺物을 復原·整理하여 文化遺蹟指定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37) 白弘基, 堀山寺의 歷史的背景과 遺蹟遺物の 性格, 飛嶺(1984)은 堀山寺의 遺溝整理報告書의 性格을 갖고 있다.